

미션홀 가정을 절대지교회망대로

세운 70인 제자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이서-

창세기 12:1-3, 요한이서 1:1-5

정윤돈 목사님

* **창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요1:1-5**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다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자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의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미션홀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다.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라고 했다.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교회는 복음공동체다. 성경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계속 했다. 민족을 없앤 나쁜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것이 지혜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과 여유는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과 삶의 이유가 진도와 선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란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말씀에 기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은 요한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이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있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중요한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예전에 저는 요한이서를 별 의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요한이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적 진도 운동의 모델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여러분도 성경적 진도운동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모델되는 시간되시기 바란다.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원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부

인인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즉, 요한이서를 받은 여자들은 그 지역의 귀부인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션홀 중직자다. 요한일서는 전 교인에게, 요한이서는 여자 중직자에게, 요한삼서는 남자 중직자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같은 원자료를 참고해서 적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또한 요한일, 이, 삼서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이 귀부인에게 이 요한이서 편지를 보낸 것일까? 그 이유는 이분이 전도의 사명은 가지고 있었고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많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대접도 하신 분이셨지만 아직 사랑이 부족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귀부인이니까 돈이 많고 교회에서 인기를 끌려하고, 섭섭하면 빠지고, 교회 떠나고 했다. 그건 교회중심이 아니라 나중심이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훌륭한 제자였지만 부족한 게 있었다. 헌신은 하면서 성경공부는 안 하고 깊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가 사랑과 진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요한이서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의 주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1)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 편지를 보낸 대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 대상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것을 보니 구원은 받았다. 그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가족복음화, 가문복음화를 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랑과 진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영적문제가 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고 자신을 죽이면서 희생하셨는데 나만 생각하니 성경과 맞지 않는다. 굶어 죽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 마음의 문제다. 헌신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요한이서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공동번역 요한이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았다. "원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장 1절 후반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그러나 제자들과 요한은 달랐다. 사랑의 기준이 진리였다. 진리는 예수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닦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진리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다. 진리여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 너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랑하라고 말한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부녀에게 보낸 이유는 이 부녀가 헌신은 많이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부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참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지식은 참 진리에 이르게 하고, 참 진리는 참 복음을 알게 하고, 참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미션홀 70인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도 모두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때 당시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진리와 구원과 사랑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똑같다.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성공하려고 해도 전문인을 만나보라고 한다. 요한이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잘못된 지식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왜 교회 다니어하니냐고 말한다. 제가 운동을 하루를 안 해도 티 안 나고, 일 년을 안 해도 티 안 나지만 십 년 지나니깐 문제 생기더라. 하루 운동을 안 해도 괜찮다. 열흘 안 해도 된다.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면 상태가 이상한 몸이 되어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주일성수 한 달, 일 년을 빠져도 괜찮다. 그러나 점점 엄청난 것을 잃는다. 그러다가 터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삶과 영적상태도 그렇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

같이 관리하고 갱신한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평생과 영원을 결정한다. 30배냐, 60배냐, 100배냐의 차이를 결정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응답하신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지식들이다. ① “우주와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주변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을 찾아보라. 우리 주변에 우연히 만들어 지는 것은 한 개도 없다. 다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꺼지지 않는 태양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우연히 도나.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와 태양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하는 것보다 응답이 더 크다.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각대로 키울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야한다. ② “인간은 진화하였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진화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적응과 진화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진화는 하나의 이론이다. 진화론이 적자생존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만들었고 여기서 공산주의와 유물주의가 나왔고 이 이론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수없이 많은 대량학살을 했던 것이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진리를 발견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③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무슬림, 통일교, 여호와증인 등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 ④ “지옥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인간들이 나중심, 물질중심, 이 땅에서의 성공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심판과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안 산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⑤ “죽으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부녀의 자녀들, 램턴트들은 진리와 복음을 잘 배운 것 같다. 요한이서 1장 4절을 보겠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했으나 후대들은 훈련받고 믿음이 좋다. 진리를 행하는 램턴트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 바란다. 즉, 이 부녀의 자녀들 중에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순종, 헌신, 봉사, 전도와 사랑을 교회와 가정 현장에서 행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후대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살아야 다 산다. 곳곳이 RUTC가 되어야 한다. 후대들이 나 혼자 잘 사는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전도와 선교,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어야 한다.

(3)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 부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어떤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빠지면 그런 사람한테는 말 못 한다. 제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 다음으로 1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은 좋아하고 예뻐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살려내고 소망을 갖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없다. 우리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

(5) 다음으로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심지어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즘에는 제 발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왜 인사하지 말라고 할까? 이단까지 전도할 사명자는 인사해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단한테 가면 깨진다. 성도들은 교역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떤 다른 성경공부나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신천지에게 속아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한다. 이러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집착한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집착하니 이단에 빠진다. 더 좋아질 리가 없다. 영적인 중독자로 변하는 것이

다. 참 복음을 증거하는 빛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6) 결국 사도 요한은 직접 만나서 더 깊은 영적인 상담인 팀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건 큰 흐름이지 영적인 성장은 소그룹에서 해야 한다. 그게 다락방이고, 팀사역이다. 꼭 소그룹에서 교역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 부녀는 자신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전도한 소중한 전도자였고 미션홈 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진리를 더욱 더 알아가는 것이었다. 만약 이 부녀가 사도 요한이 전한 이 강단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그 자신과 후대들은 237나라 세계복음화와 로마복음화에 쓰임 받았을 것이다. 저는 이 부녀의 이름도 모르고 성경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나오지도 않는다. 미션홈 제자로 세워졌든지, 빠져서 영지주의자를 따라갔든지 했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5가지 성경적인 전도의 기초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① 첫 번째 기초는 다락방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순교의 마음으로 모였다. 그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까지 복음을 말해주는 현장이다. 다락방이란, 일대일이나 소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교제는 복음 편지이다. 새가족에게는 1과부터 5과까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다락방만 정확히 해도 영육간의 축복과 전도와 선교 사역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② 두 번째는 팀사역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알려 주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스도와 복음과 예배에 대하여 알려 주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상담해 주고 위로도 해 주는 것이 팀사역이다. 그리고 팀사역 전도란, 팀을 이루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전도캠프이다.

③ 세 번째는 미션홈이다. 미션홈이란, 우리의 가정을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제자들은 모두 미션홈 제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다. 가정이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전하라는 말이다. 미션홈의 두 번째 의미는 미션홈 제자이다. 미션홈 제자란, 복음 전도를 인생의 절대목표로 생각하는 전도자를 의미한다. 미션홈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빛과 소금된 삶을 살려고 도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의 망대’도 되어야 한다. 함께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함께 살면서 빛을 발하고 전도하고 제자로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가정 복음화 엄청 어렵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 가정부터 복음화하고 빛을 발해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④ 네 번째는 전문사역이다. 태영아 유치사역, 어린이사역, 청소년사역, 무속사역, 중독사역, 치유사역, 산업선교 등 전문분야에서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다섯 번째는 지교회이다. 지교회란, 내가 사는 지역이나 직장이나, 특별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70명대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대로 나와 있다. 이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이서다. 같이 캠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교회와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 모습이다.

끝으로 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까지 살리는 미션홈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과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소중한 미션홈의 의미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영적으로 성장하여 현장을 살리는 미션홈 제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